전주發 드론축구, 글로벌 시장 진출

일산 킨텍스서 30일까지 열리는 '2018 로보유니버스&K드론' 참가
'전주시 4차산업 공동전시관' 홍보로 신산업 글로벌화 발판 마련
미국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기업 Thinktomi 투자사와 업무협약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가 서비스로봇과 드론 등 미래형 첨단 산업분야가 총출동하는 국제 전시회에서 선보일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빨라지게 됐다.

시와 (사)캠틱종합기술원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18 로보유니버스 & K드론' 에서 '전주시 4차산업 공동전시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전국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드론축구의 저변확대와 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보유니버스는 킨텍스와 미국 라이징미디어(rising media) 공동주관으로 연간 7개국 순회로 열리는 서비스로봇 드론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및 전문 전시회로 3일간 서비스로봇과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로보유니버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는 총 22개 팀이 참가하는 '제2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드론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도 이날 경기장을 찾아 드론축구 붐 조성과 전국적 저변확대에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이날 전국드론축구대회 개회식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창업기업 지원 및 멘토링 전문기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Thinktomi 투자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미국 Thinktomi사의 창립자인 마노지 페르난도(Manoj Fernando)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시 드론기업 투자 및 미국 등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로보유니버스가 열리는 3일간 킨텍스 전시장에서 탄소, 3D프린팅, 드론 등 전주시 4차 산업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전주시 4차산업 공동전시관' 홍보부스를 마련, ㈜신드론, ㈜우리항공, (사)캠틱종합기술원, 새만금항공(주),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솔라시도코리아(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7개 기관, 1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 경기장에서는 드론축구 시연행사와 시범경기,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이 드론 ICT기술과 레저스포츠가 융합하여 선사할 박진감과 재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시에, 시는 미래세대를 향한 저변확대와 글로벌 유망 킬러 콘텐츠 육성을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유소년용 드론축구'와 드론·전통문화·미디어아트(홀로그램, 3D맵핑)를 전주정신 "꽃심"을 결합한 전주형 4차산업 콘텐츠인 드론예술공연(꽃심,나르샤)도 소개하는 등 드론 기반 신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는 전주시의 비전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개최와 글로벌 마케팅 가속화,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저렴하고 우수한 드론축구용품 출시 등 저변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의 활용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레저스포츠 분야와 드론의 융복합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CT 융복합 레저스포츠의 선도모델인 드론축구가 미래를 선도할 미래먹거리 드론산업의 새로운 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힘을 기울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로 그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우리가 앞장서요!'

'폭력추방' 지역연대와 함께하는 전주시민 하나로 행사

민·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폭력추방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지역연대 위원과 여성폭력 예방시설 종사자, 완산·덕진경찰서 관계자, 전주시여성단체 관계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추방 문화행사인 전주시민 하나로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폭력추방 행복지킴이 선서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쑤와리질라' 댄스동아리의 공연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함께 아동학대와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 등에 대한 강한 결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폭력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 아동·여성 안전지킴이집에 풋-SOS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폭력추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대는 지난 단오제 기간에도 폭력추방행사를 했으며, 다가오는 양성평등주간(7.1~7.7)에도 폭력추방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역앞 상업지역 활성화 위한 시민소통 강화

전주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정책 기반 마련

전주역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첫마중길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는 27일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첫마중길 인근 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첫마중길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의 6회차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운영되었고, 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저변확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전주한옥마을의 관광 현황과 이에 따른 관광지원 정책, 문제점 및 시사점, 대안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한옥마을의 변천과정과 관광지로서 발전하게 된 배경과 정책, 창조적 문화산업의 경제효과, 이에 따른 관광객 과대수요 대처를 위한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수용태세 등에 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첫 교육을 시작으로, 주민과 상인들은 3회에 걸친 전문가 교육, 2회에 걸친 주민주도 워크샵을 통해 전주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정책 수립과정,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협의하는 절차 등을 알아가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송효철 기자

여름철 감염병 예방

전주시 보건소, 에어컨 집중점검

전주시가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레지오넬라증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발병하는 레지오넬라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을 중심으로 시설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건소는 또 레지오넬라증의 경우 주로 오염된 물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 감염되는 만큼 대형목욕탕과 찜질방 등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와 급수시설, 거리의 분수대 등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은 전신 권태감과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 갑작스러운 오한과 발열, 흉통 등이다.

조기에 치료할 경우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5~20%의 사망률을 보이므로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송효철기자

생태도시 전주시민이 만들어봐요 2018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회 "시민이 만드는 생태 도시 전주에서 청년과 더불어 살아요"가 27일 전북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주시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이 평가보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주시,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과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27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서 공직사회에 올바른 인권의식이 뿌리내려 사람중심·인권중심 행정이 전주 시정 전반에 투영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와 EBS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미투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에서의 여성차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조직문화 만들기 △미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중심으로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향후에 인권단체 직원과 회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에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술집도 전소됐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